



生活クラブ
2030
行動宣言

지속가능성
보고서










2023년도 실적

サステイナブルなひと、
生活クラブ

생활클럽은 SDGs의 이념에 앞서가며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는 활동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생활클럽 2030 행동선언」은 11개 중요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23년도의 성과와 함께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지 보고합니다

Contents

중요목표 1 4	중요목표 2 7	중요목표 3 9	중요목표 4 11	중요목표 5 12	중요목표 6 14	중요목표 7 15
						
식량주권의 개념을 기축으로 한 일본 국내 생산을 추구하고 공정한 조달을 실시합니다	소재 본연의 맛, 식재료에 관련된 지혜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먹거리 실현을 도모합니다.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와 육지의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책에 힘씁니다.	우리는 사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에 대비하여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지킵니다.	원전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며 재생가능 에너지의 생산과 보급에 임합니다.	누구나 개성을 살리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와 사회를 만듭니다.	빈곤과 고립을 간과하지 않고, 자립을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며 서로 돌보고 다양한 거처와 일 자리를 만듭니다.
중요목표 8 16	중요목표 9 17	중요목표 10 18	중요목표 11 19			
						
비전(非戰)과 공생의 입장을 관철하여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성평등과 다양한 노동 방식을 실현합니다.	다른 단체 및 정부와 협력하여 새로운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합니다.	정보 개시와 자주관리를 기본으로 하며, 스스로 생각, 결정, 실행합니다.			
숫자로 보는 동향과 추이 20	2023년도 생활클럽 활동을 돌아본다 22					

[개재내용에 대해서]

본 보고서에 개재된 활동 및 데이터는 주로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의 실적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외의 정보는 각 항목마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중요목표 4 11	중요목표 5 12	중요목표 6 14	중요목표 7 15
			
우리는 사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에 대비하여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지킵니다.	원전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며 재생가능 에너지의 생산과 보급에 임합니다.	누구나 개성을 살리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와 사회를 만듭니다.	빈곤과 고립을 간과하지 않고, 자립을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며 서로 돌보고 다양한 거처와 일 자리를 만듭니다.



Topics of 2023

중요목표 2 더욱 건강한 밀키트 시리즈
‘뭇토(더욱) 비오사포!’ 가 데뷔



커팅된 국산 야채·고기나 생선, 제육 생산자의 조미료를 사용한 생활클럽의 밀키트 ‘비오사포 식재료 세트’로부터 보다 건강을 지향하는 ‘뭇토 비오사포!’ 가 데뷔. 조합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강 주제에 따라서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요목표 10 소비자 생산자의 교류시설
‘TOCHITO’를 야마가타현 사카타시에 오픈



생활클럽과 제육 산지가 있는 야마가타현 사카타시가 제휴하여 ‘이주자의 거주’ + ‘지역과 교류하는 장소’ 등의 기능을 가진 거점 ‘TOCHITO(토치토)’ 를 오픈했습니다

조합원이 생산자와 협력하여 소비재 개발!



생활클럽의 조합원과 제육 생산자가 협력해 소비재를 개발. 생활클럽 돼지고기를 남김 없이 사용한 ‘이거 좋아! 슬라이스 소시지/멍어리 소시지’와 제육 산지의 쌀로 만드는 냉동 주먹밥 ‘고무스비짱’이 탄생했습니다.

생활클럽 행동연표

- 1965 (연도) ‘생활클럽’ 결성
- 1977 합성세제 취급을 그만두고 비누 이용 운동을 본격화
- 1986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겪으면서 방사능 자체기준 설정
- 1990 생활클럽 연합회 설립 총회. 협동조합운동이 먹거리 자급력 향상,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 만들기의 모델이 되도록 실천하기로 결정
- 1994 병을 재사용하는 ‘그린 시스템’ 시작
- 1997 ‘자주 관리 감사 제도’ 시작 「안전·건강·환경」 생활클럽 원칙을 제정. 차세대를 생각하며 생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책임지기
- 2015 생활선언 (브랜드 스테이트먼트)과 10가지 Think & Act 결정
- 2016 2014년 설립된 주생활클럽에너지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전기 공동구매 스타트 ‘생활클럽의 복지·상부상조 8원칙’ 결정
- 2018 ‘생활클럽 소비재 10 원칙’을 결정. 자주관리감사제도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추진제도로 리뉴얼
- 2020 ‘생활클럽 2030 행동선언’을 결의 ‘기후위기선언’을 발표
- 2022 ‘생활클럽 2030 행동선언’의 중요 목표를 11개로 늘려 결의 ‘연대하는 로컬 SDGs’ 를 테마로 한 구조 만들기를 시작 ‘에너지사업연합’ 을 설립
- 2023 소나이 지역의 ‘로컬 SDGs’ 의 대응이 제10회 환경성 국가리프 어워드에서 환경부 장관 우수상을 수상

「생활클럽 2030 행동선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이쪽에 ▶



1 식량주권의 개념을 기축으로 한 일본 국내 생산을 추구하고 공정한 조달을 실시합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추진한다

생산자와 함께 일본 국내 자급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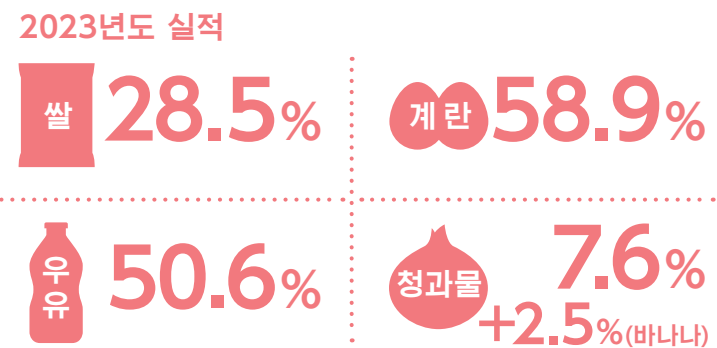
가정에서 소비하는 기본 식재료이며 다양한 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1차 산품을 만들어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제휴 생산자와 함께 일본 국내 자급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개발 쌀'을 만드는 야마가타, 나가노, 도치기, 미야기 등 4개의 주요 산지를 중심으로 각 생산지역과 지역 전체의 연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 등 먹거리를 뛰어넘는 도전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약으로 서포트하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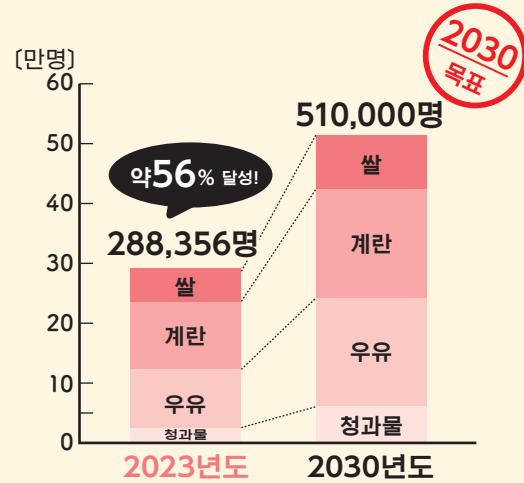
생활클럽의 주문 방법 중 하나로, 조합원이 예약한 소비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야쿠라부'가 있습니다. 매주 주문을 서포트하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쌀, 우유, 계란, 청과물을 예약할 수 있는 '비전푸드' '요야쿠라부'는 예약을 통해 조합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전망하고 생산자가 생산계획을 세우기 용이하여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서포트해 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전푸드 요야쿠라부의 예약률*



2023년도 실적 및 2030년 목표

쌀·계란·우유·청과물 예약 조합원수



[내역] 2023년도 / 쌀: 55,042명, 계란: 113,680명, 우유: 97,685명, 청과물: 16,521+5,428명(바나나) 2030 목표 / 쌀: 90,000명, 계란: 180,000명, 우유: 180,000명, 청과물: 60,000명

*예약가능한 소비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청과물 예약은 2022년도부터 7개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청과물 예약에 바나나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 1차 산품

생활클럽이나 쌀, 우유, 계란, 육류 등은 자연에서 그대로 채취한 상태로 가공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 공동개발 쌀

생활클럽의 쌀은 조합원과 생산자들이 품종과 농업 방법을 논의하여 '공동개발'합니다. 조합원들이 먹고 싶어 하고 생산자가 생산하고 싶어 하는 쌀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생명산업인 제1차 산업에 있어서 종자에 이르기까지 일본 국내 자급을 추구하고 생산 정보의 개시를 진행합니다. 또한 국내외를 불문하고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배려하여 합의에 근거한 조달을 실행합니다.



종자로부터 생산과 출하, 국내자급 추구

일본 식량 자급률과 생활클럽의 국산원료의 대치를 알 수 있는 프로젝트 '마카나이 테'의 웹사이트는 이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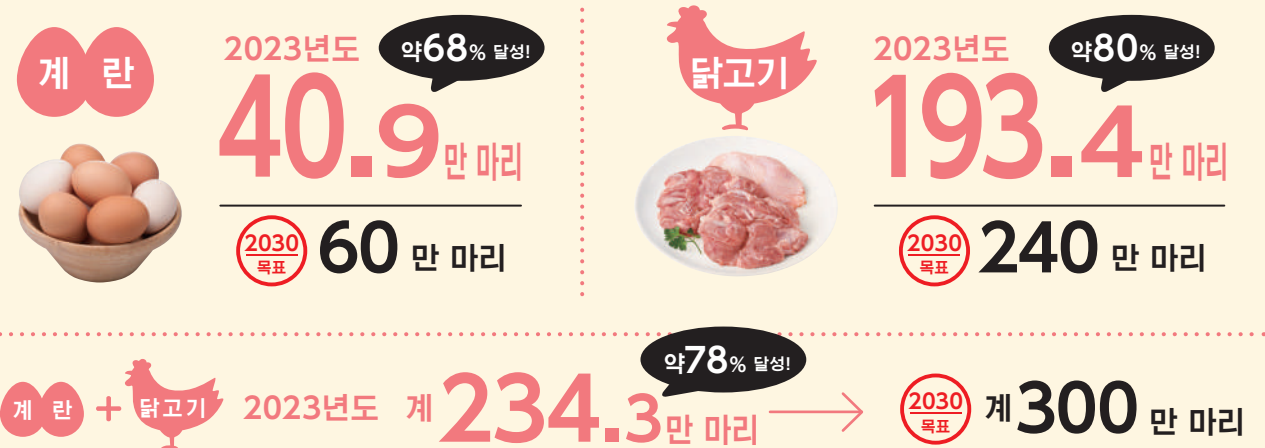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종자 유지와 개발

닭고기·계란의 '일본산 닭 품종'의 생산과 확대에 힘써 수입에 의지하지 않는 품종의 자급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먹는 닭이나 계란을 낳는 닭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어미 닭을 수입해서 키운 것. 일본 국내에서 품종 자급이 가능해지면 일본의 기후 풍토에 맞는 형질이나 일본 국내의 기호에 맞게 품종을 개량하기가 쉬워집니다.



2023년도 실적과 2030년 목표

일본에서 육종하고 개량한 '일본산 닭 품종'의 사육수



게다가 축산 사료도 일본산으로

일본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닭, 소 등의 사료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 상황입니다. 생활클럽에서는 사료도 국산화를 지향하며 사료용 쌀의 먹이 공급 확대나 자실(子実) 옥수수 등 사료용 작물 확대에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실적에서는 원래 2030년 목표로 삼았던 사료 자급률 35% (중량 기준)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목표치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요목표 1 식량 주권의 개념을 기적으로 한 일본 국내생산 추구하고 공정한 조달을 실시합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파트너십을 돈독히 한다

조합원과 제후 생산자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산지를 방문해 소비재의 생산에 대해 배우는 '생산자 교류회'를 비롯해 생산자를 각지의 생활클럽으로 초대하는 '소비자 교류회'나 '학습회'도 개최. 가공용 토마토의 심기나 수확에도 조합원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도 활용하면서 교류의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나이 교류회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각지의 조합원이 야마가타현 소나이 지방을 방문하는 대규모 교류회. 수일간 밭이나 정과물, 가공품 등의 생산자와 교류합니다.



소비자 교류회

생산자가 조합원을 방문해 학습회나 요리 강습회 등을 개최. 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비재에 적용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계획적 노동참가

토마토 주스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공용 토마토의 옮겨심기와 수확에 조합원도 참가. 수확기를 맞이하는 매년 8월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자와의 연대

일본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식품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산의 경우에도 소비재로서의 기준은 일본산과 동일합니다. 바다를 넘어 서로의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구축하여 조합원과 생산자가 함께 풍성해지는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산 브랜드 유채기름'에는 호주산 Non-GM 종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산자를 조합원이 방문하여 시찰과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정보 공개

취급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해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운송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합원에게 정보를 공개합니다.

■ 농산물 및 축산물 생산 계획·생산이력의 개시 **100%**

■ MSC 인증 원료를 사용한 소비재의 주문 수량 **135만4,252점**

예를 들어 이런 대책도 하고 있습니다

- 수산물로 만든 소비재 중 일부는 'MSC 인증' 수입 원료를 사용
- '세탁용 가루 비누'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방산의 일부를 팜유에서 폐식용유로 변경
- 마가린 제품 3종의 원료로 사용되는 팜유가 'RSPO' 인증된 원료로 변경

리뉴얼된 비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이쪽

새로운 대책 식품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생활클럽에서는 소비재의 유통기한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에 따른 맛과 품질 변화를 검사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유통기한을 더욱 연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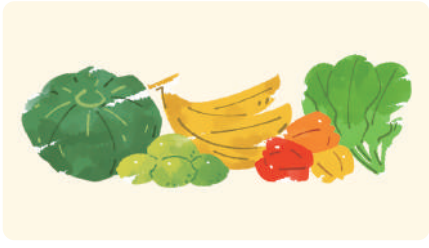
■ 유통기한을 연장한 품목수 **약37% 달성!**

누적 품목수 **219품목** (2020~2023년도)

2030 목표 **600품목**

중요목표 2

2 소재 본연의 맛, 식재료에 관련된 지혜나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먹거리 실현을 도모합니다.



필요 없는 첨가물이나 약제의 사용을 가능한 한 삭감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공헌하는 식재료의 사용법이나 섭취 방법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합니다.

화학합성농약이나 항균성물질(항생물질·합성항균제) 등의 사용을 삭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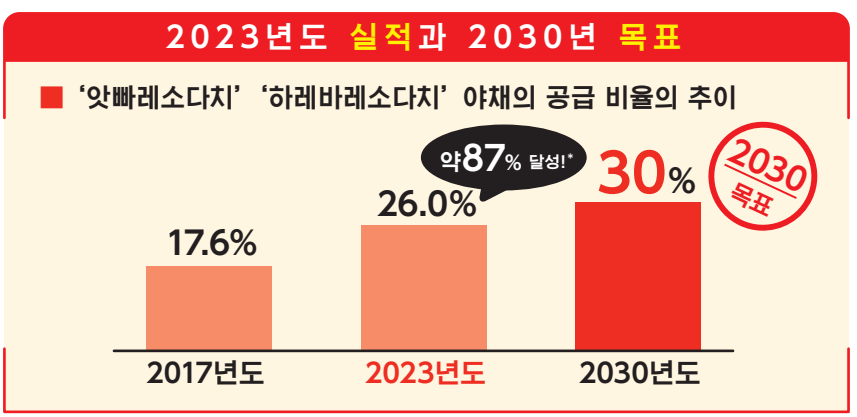
농약을 최대한 줄인 야채 만들기

생활클럽의 야채는 모두 '어스메이드 야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화학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고, 생산자와 함께 흙 만들기부터 시작해 '언제·누가·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재배 이력을 모두 밝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앗빠레소다치', '하레바레소다치' 야채는 독자적인 기준 아래 철저한 품질관리로 가정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어스메이드 야채의 로고마크

※ '어스메이드 야채'는 간사이 지방을 제외한 생활클럽의 정과물 규격입니다. 간사이 지역의 생활클럽에서는 자체 기준에 따라 독자 규격으로 정과물을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 앗빠레소다치**
재배기간 동안 화학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키웠습니다.
- 하레바레소다치**
재배기간 동안 화학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키웠습니다.

게다가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 최우선으로 소, 돼지, 닭 육성

생활클럽 제후 축산 생산자는 소와 돼지, 닭이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이 병에 잘 걸리지 않고 항생물질에 의존하지 않는 사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병 치료는 제외).

소 3,344마리	돼지 84,910마리	닭 1,934,195마리
---------------------	-----------------------	-------------------------

* FY2023년도 실적



* MSC인증
전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해양관리위원회(Marine Stewardship Council)가 관리하고 있는 수산자원과 환경을 배려하여 적절하게 관리된 어원으로 잡은 수산물인 증거.

* RSPO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지속가능한 팜 오일을 위한 원탁 회의').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



중요목표 2 소재 본연의 맛, 식재료에 관련된 지혜나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고 중요한 먹거리 실현을 도모합니다.

소재의 장점을 살려 불필요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재 만들기

필요없는 식품첨가물은 사용하지 않기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의심스러운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 것은 모두 공개한다'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사용이 허용된 식품첨가물은 834개 품목. 생활클럽에서는 그 약 1/10만을 허용하고, 사용 용도도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 허용 식품첨가물



※일본에서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에는 '지정첨가물' '기준첨가물' '천연향료' '일반음식물첨가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기재된 834개 품목과 93개 품목(표시의무가 없는 첨가물 및 분유의 영양소는 제외)은 '지정첨가물' '기준첨가물'을 가리킵니다.

2023년도 실적과 2030년 목표

■ 자체 기준에 따라 필요없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소비재의 누적수

2023년도 **약83% 달성!**
3,395 품목



2030 목표 **4,097** 품목

밀키트와 누구나 먹기 좋은 식품 개발

안전성을 고려한 식품을 사용하여 영양 균형이 잡힌 섭취 방법을 조합원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재료가 가진 영양을 살린 소비재나 전통적인 제법과 조리 방법으로 만든 소비재의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오사포* 식재료 세트

소비재와 일본산 야채, 재휴 생산지의 조미료를 사용한 생활클럽의 밀키트. 2022년도에는 방동 비오사포 식재료 세트도 출시



비쇼쿠하쿠사이(美食百彩)*

라이프 스테이지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세대의 건강을 서포트하는 소비재 시리즈.



건강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 정보를 발신

비오사포 활동을 조합원이 이해하고 날마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학습회를 개최. 식단 짜는 지식을 전하는 강좌와 육아 지원 강좌, 시니어 세대의 건강 유지에 대한 강좌 등도 있습니다.



2023년도 실적과 2030년 목표

■ 비오사포 강좌 개최수

2023년도 **약41% 달성!**
33 회
2030 목표 **80** 회

■ 비오사포 강좌 참가자수

2023년도 **약30% 달성!**
474 명
2030 목표 **1,600**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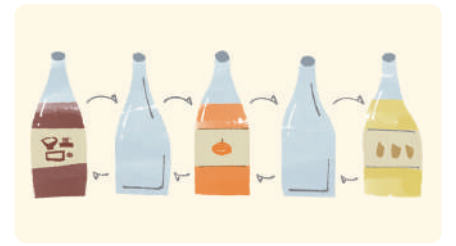
2023년도 실적과 2030년 목표

■ 비오사포 식재료 세트와 비쇼쿠하쿠사이 누적 품목수

2023년도 **약51% 달성!**
329 품목 → 2030 목표 **644** 품목

중요목표

3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와 육지의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책에 힘씁니다.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유전자 조작을 실시한 식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그 생산에 반대합니다. 또한 생산·유통·소비·폐기의 각 단계에서의 친환경을 배려함과 동시에 중점적으로 온실 효과 가스의 삭감에 대처합니다.

용기포장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병으로 환경부하를 줄인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용적의 약 60%가 용기나 포장재입니다. 생활클럽에서는 가급적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조미료나 주스 등의 용기를 몇 종류의 재사용 병으로 통일하고 회수하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복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클럽에서는 이러한 대처를 '그린 시스템'으로 명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Garbage Reduction for Ecology and Earth's Necessity (지구 생태계를 위한 쓰레기 감량)의 머리 글자인 GREEN에서 지었습니다.

2023년도 실적과 2030년 목표

■ 조미료나 주스 등의 용기에 사용되는 R병 회수율

2023년도 **약97% 달성!**
77.7%
2030 목표 **80%**

R병...일본 유리병협회가 규격통일한 재사용 병으로 인증한 병.

새로운 대처

재해용 생수의 라벨을 없애서 플라스틱 삭감

재해시의 회전 비축으로서 취급하는 '재해용 생수'는 휴대 용이성이나 위생면, 장기 보존의 용이성 때문에 소비재로 유일하게 페트병에 담겨 있습니다. 한편, 현재 각 음료 메이커에서는 환경을 배려해 페트병의 플라스틱 라벨을 없애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부터도 요청이 있었기에 제조원의 협력을 받아 2024년 4월부터 라벨리스에 대응^{*1}. 재해용 생수의 라벨을 없애므로써 연간 약 5.4t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2}

※1 생활클럽 매장 '데포'에서는 라벨 표시를 하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라벨이 부착된 것을 취급합니다.

※2 2023년도의 공급 실적에 의해 산출.



대상 플라스틱의 총 사용량 삭감 **2030 목표 25% 삭감**

'재활용 플라스틱' 및 '식물 유래 플라스틱'의 사용률 인상 **2030 목표 50%**



* 비오사포

'비오사포'란, 생명을 뜻하는 'BIO'와 '미·美'를 합성해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식생활을 서포트한다는 의미의 조성어. 음식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 만들기를 위해서 배울 수 없는 균형잡힌 '섭취방법'에 대한 정보도 발신하고 있습니다.

* 비쇼쿠하쿠사이(美食百彩)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다양한 세대의 건강한 일상의 식탁을 서포트하는 소비재 시리즈입니다.



중요목표 3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와 육지의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책에 힘씁니다.

생활클럽 그룹의 CO₂ 배출량을 삭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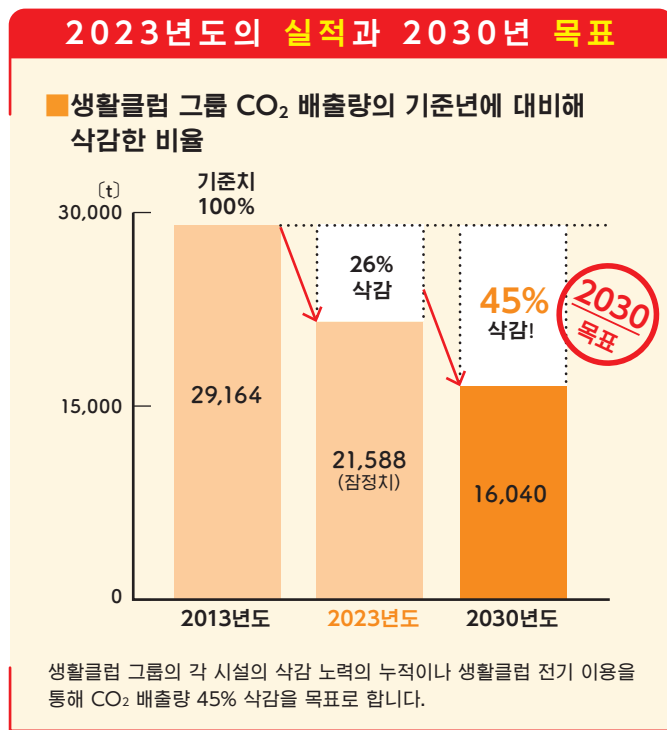
CO₂ 배출을 2050년까지 한없이 '제로(0)' 로

생활클럽 그룹 전체가 지구를 과열화하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 삭감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을 45% 삭감(2013년 대비), 2050년에는 한없이 '제로(0)' 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생활클럽 그룹의 CO₂ 삭감량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3년의 CO₂ 삭감량을 용적으로 나타내면 도쿄돔약3개분
※기초배출계수를 사용한 배출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정 후 배출계수를 사용했을 경우의 2023년도 배출량은 30,605t-CO₂이 됩니다.



일상생활의 선택으로 환경과 생태계를 지킨다.

합성세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누의 이용을 권장하며 석유나 유지 등을 원료로 한 합성계면활성제로 만들어진 합성세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세탁용 가루비누' 등 3품목의 원료인 지방산의 일부를 팜유 유래에서 폐식용유 유래의 것으로 변경하여 보다 환경과 인권을 배려한 원료 규격으로 전환했습니다. 게다가 포장재인 플라스틱 삭감에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생활 클럽 × 일본대학 예술학부】

산학 제휴 프로젝트 생활클럽은 2023년에 일본대학 예술학부와 제휴, 학생이 산지를 방문해 취재하고 물을 지키기 위한 대처활동이나 환경에 좋은 비누의 매력 등에 대해서 독자적인 표현으로 발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EB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한 식물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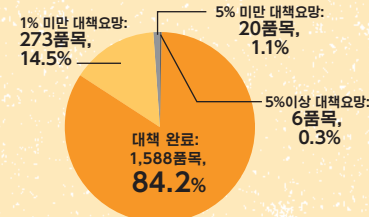
생활클럽에서는 '의심스러운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는 생각으로, 유전자 변형 작물·식품은 취급하지 않는 것은 기본으로 하여 그 생산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휴 생산자와 협력하여 식품의 원재료, 축산물 사료에도 유전자 변형 작물 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능 편집 된 원재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Non-GM사료*의 사용량

2022년도 실적 **37,777t**

※유전자 변형 작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분별되어 사용된 사료의 양.

■ GM대책안료 소비재의 비율



* 유전자 변형 작물 (GM작물 / GMO)

어떤 특정 성질을 만들기 위해 미생물 등 다른 생물의 유전자 일부를 잘라내 자신의 유전자에 끼워넣는 작업을 한 작물을 말합니다.(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계능 편집 식품

특정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녹아웃 (Knock-out)' 과 특정 유전자를 외부에서 삽입하는 '녹인 (Knock-in)'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요목표

4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삶과 미래를 지킵니다.



기후 및 재해와 같은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보장하며 사람들의 삶을 지킵니다.

기후 위기에 적응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에 대한 대처를 추진합니다.

변화하는 기후에 적합한 농산품 품종을 찾는다

기후 위기에 따른 영향 등으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작물을 계속 재배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활클럽에서는 여름의 고온이나 조류 인플루엔자의 위험 등에 대응해 지역 특성에 맞게 닭 사육 방법을 모색, 개방형 양계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계란 농장에서 세미윈드레스_Semi Windless 양계장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과 매실 등을 생산하는 나라현의 (유)오인도농장에서도 재배에 적합한 토지와 품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 채용하는 세미윈드레스 양계장. 강제 환기에 의해 여름철 닭의 폐사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며 자연풍과 햇빛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본부족이나 고령화 문제 해결을 목표로 (유)오인도농원에서 실시하는 경시에서의 스마트농기 실증 실험



(유)오인도농원에서는 감나무 정점 관측을 실시하여 기온 등의 변화가 끼치는 영향을 조사

지자체와 연계한 재해 대비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협정 체결

생활클럽은 제휴 생산자가 많고 유대관계도 깊은 나가노현의 시오지리시, 야마가타현의 사카타시, 유자마치 등의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해에 대비.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나가노현 시오지리시와는 방재용 식수 공급을 위한 수원 이용에 관한 협력을 계기로 포괄적인 연대 협정을 체결. 재해 발생시 생필품 공급을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마가타현 사카타시】

생활클럽 생활연합회, 나가노현 사카타시, 소나이 미도리농업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소나이 친생회가 상호 협력을 통해 소나이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포괄연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12월27일)



【야마가타현 유자마치】

대규모 재해 발생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 생활클럽 · 유자마치 · JA 소나이 미도리 3단체가 대규모 재해시의 대책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016년 4월 18일)



【나가노현 시오지리시】

생활클럽 협동조합 (L기노), 생활클럽 생활연합회, 나가노현 시오지리시가 포괄연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9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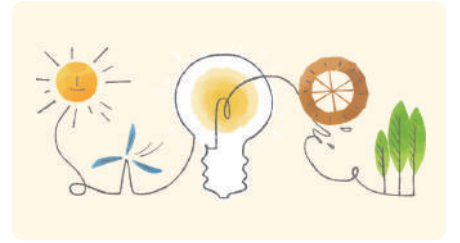
중요목표

5

원전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며 재생가능 에너지의 생산과 보급에 임합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력을 만들고 연대와 공동구매를 통해
선택하는 사람과 사업자를 늘려 원전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듭니다.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을 권장한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자신들이 만든다

생활클럽에서는 서스टे이너블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원전이나 화석 연료에 의지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생활클럽 전기'의 공동구매를 2016년에 개시. 전국 약 69개소의 발전소의 전기를 각지의 생활클럽이나 제휴 생산자가 출자해 설립한 (주)생활클럽 에너지가 매입·수급 조절을 실시해 조합원의 가정이나 소비재를 만드는 공장 등에 조달하고 있습니다.

'생활클럽 전기' 만의 시스템 이용자 환원·환급 제도

잉여가 생긴 경우는 이용자에게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잉여분이 전량될 경우에 사용된 전기요금에 따라서 나누어 다음 연도에 환급을 실시합니다.

2023년도 실적과 2030년 목표

■ '생활클럽 전기'를 계약한 건수(저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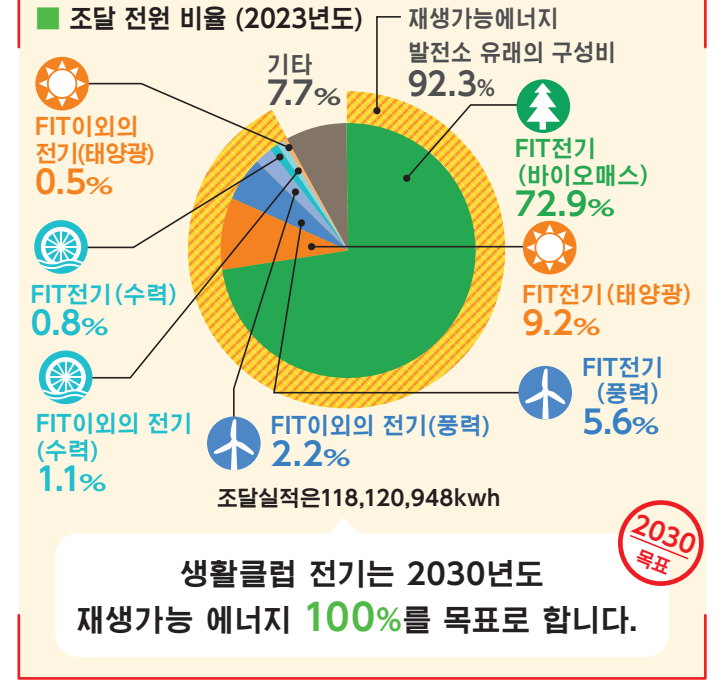
생활클럽 전기의 발전소를 늘린다

새로운 발전소 건설과 사업자와의 제휴

생활클럽 전기는 전국에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전력의 '원료'가 되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등, 환경 부하가 적고, 주변에 네트워크를 만들기 쉬운 분산형 에너지원입니다.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100%로 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발전소의 건설이나 뜻을 함께 하는 사업자와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실적과 2030년 목표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선진국 독일·덴마크를 시찰

중요목표 5 '원전 없는 사회를 목표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생산과 보급에 임합니다'의 실현에는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독일 덴마크로 시찰을 갔습니다. 멤버는 조합원 10명과 사무국 외에 제휴 생산자, 에너지 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나 전문가 등 총 20명. 2개국의 에너지 정책의 본연의 자세, 에너지 절약이나 지역 열공급, 재생 에너지 플랜트 등 많은 사례를 시찰했습니다. 모든 시찰처에서도 일관되게 그 대응의 배경에는 에너지를 자신의 일로서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에 참가하는 시민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생활클럽 활동과 일맥상통하는 것. 중요목표 5를 달성한 국가와 지역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번 시찰을 목표 실현에 활용해 가겠습니다.



생활클럽 전기의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소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노베야마 영농형 태양광발전(나가노현)
나가노현 야쓰가타케 산기슭에 있는 노베야마에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노베야마 영농회 주시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생활클럽연합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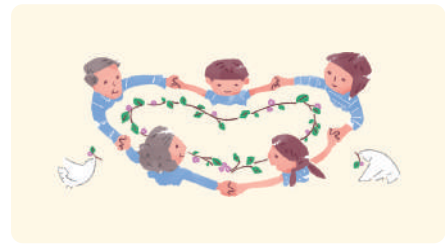


※상기 조달전원 수치는 생활클럽 사업소 및 관련시설(고압)과 생활클럽 조합원(저압)의 공급실적에 기초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최신 조달전원 비율은 (주)생활클럽에너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생활클럽에너지가 이 전기를 조달하는 비용의 일부는 (주)생활클럽에너지 이외의 이용자를 포함하여 전기를 이용하시는 분으로부터 받은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한 부과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이 전기의 CO₂ 배출량은 화력발전 등을 포함한 전국 평균 CO₂ 배출량을 가진 전기로 취급됩니다. ※ 그 외 임밸런스 등에는 이전의 일반 전기사업자로부터 임밸런스(보급) 공급을 받은 전기와 타사로부터 조달된 전기의 일부 중 발전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CO₂ 배출계수(조정 후 배출계수)는 0.465입니다.(단위:kg-CO₂/kWh)



중요목표

6 누구나 개성을 살리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과 사회를 만듭니다.



태어나서 생애를 마칠 때까지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 및 시민 활동의 환경 정비와 자원 창출을 추구합니다.

일생을 통해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다양한 사람을 돕는 지역 활동과 사업

다양한 세대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삶의 보람을 느끼며 정든 지역에서 자신답게 살 수 있도록 거처 만들기나 역할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처 만들기 대응하는 지역(지자체) 수
143
2022년도 실적

오사카부 히라카타시의 육아광장 '히라히라'를 방문한 부모와 자녀

개호예방에 대한 대처와 건강 장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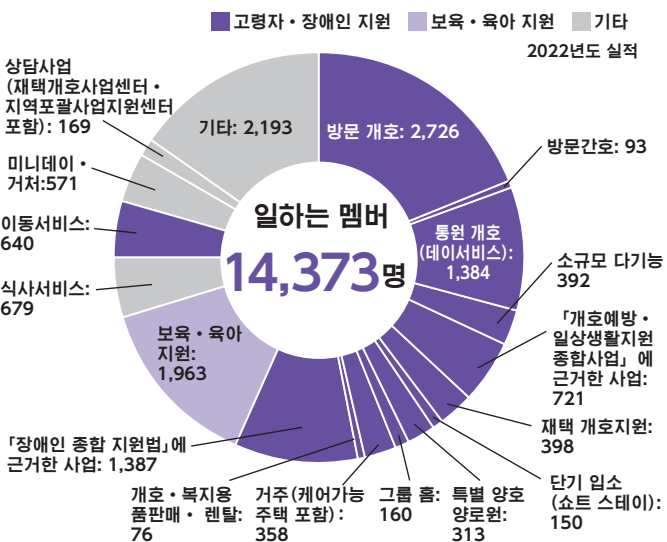
건강 만들기의 지원으로서 간단한 운동방법이나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연결되는 정보를 웹 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발신. 또한 「비쇼쿠하쿠사이」 소비재와 연동한 비오사포 액티브 시니어 강좌*의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호 예방·건강 유지 활동에 힘쓴다 지역(지자체) 수
32
2022년도 실적

*비오사포 액티브 시니어 (비하쿠하쿠사이) 강좌 「체조」편에 모인 참가자들 (생활클럽 교도엘코프)

생활클럽 그룹 복지사업에서 일하는 멤버



방재, 감재 활동과 재해시 지역의 상부상조

방재, 감재에 대한 의식을 고조시켜 평소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방재 워크숍을 개최. 또한 국민 공제 coop(전노재)가 주최하는 방재 세미나와 제휴하여 인생설계 강좌를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생설계 강좌 방재 워크숍 개최수
23개 강좌

참가 인원수
261명
2023년도 실적

인생설계 강좌의 모습

*지자체란, 기초지자체인 '시구청촌'

중요목표

7 빈곤과 고립을 간과하지 않고 자립을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며 서로 돌보고 다양한 거처와 일하는 방식을 만듭니다.



현대사회가 낳는 빈곤을 외면하지 않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취약계층을 고립시키는 사회구조 변혁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의 연대를 통해 세이프티넷으로 보호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서로 유대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 대한 서비스와 케어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주에 관한 서비스나 돌봄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최소한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 등에 대해서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장구에 대응하는 지역(지자체) 수
8
2022년도 실적

*인정 NPO법인 커뮤니티 케어 마지넷'(지바현)에서의 가계 상담의 모습

먹거리 재분배와 식육 추진

소비재를 만드는 생산자가 모이는 '생활클럽 친생회'와 제휴하여 생활클럽 푸드뱅크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공처는 어린이 식당, 거처 운영 단체 등으로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공처 단체수
7개현 30개 단체

생산자수
25 단체

2022년도 실적

조합원이 자원봉사자로 식재의 구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가나가와)

누구나 역할 있는 거처 만들기

사회적·심리적 성별, 연령, 장애 등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나 직장을 넓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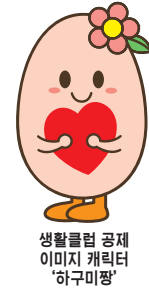
취업 지원에 대처하는 단협수
5 단협
2022년도 실적

생활클럽 야마가타에 의한 '취업 지원'

'생활클럽 공제 하구쿠미'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생활클럽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보장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보장 뿐만 아니라, 가사 개호 지원이나 보육 지원이나 이동 서비스 등 지역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서로 돕는 케어 서비스의 전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수
49,532명
(2024년 3월말 시점)



생활클럽 공제 이미지 캐릭터 '하구미짱'

조합원끼리의 상부상조 '에코로(공제) 제도'

생활클럽만의 독특한 상부상조의 구조입니다. 제도 내용은 각지의 생활클럽에 따라 다르지만 조합원들끼리 '피차일반'의 마음으로 돕겠다는 취지는 동일합니다. 현재 14개 도도부현의 생활클럽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란, 기초지자체인 '시구청촌'



* 비오사포 액티브 시니어 강좌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식생활을 서포트하는 활동 '비오사포'의 일환으로 시니어들의 먹거리를 테마로 한 강좌입니다.



8 **중요목표** 비전(非戰)과 공생의 입장을 관철하여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전쟁 없는 세계를 지향하고 해외의 시민과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적 발언권을 발휘합니다.

■ 많은 의견을 모아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국가에 전달

개인의 힘은 작아도 그것이 많이 모이면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생활클럽은 2024년 2월 탈원전, 탈탄소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서명 112,957명분을 경제산업부장관, 환경부장관 앞으로 제출했습니다. 생활클럽에서는 기후 위기나 원전(원자력 발전), 자원 문제 등을 해결하는 대책의 하나로써 재생가능 에너지(이하, 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탈탄소화 사회의 실현'

을 이유로 원자력 발전 추진 정책으로 전환. 이에 대해 '원전 추진은 기후 위기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 라고 전국 각지의 생활클럽 조합원이 서명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서명 제출에 즈음하여 중의원 의원 제2 회관에서 원내 집회 '탈원전·탈탄소와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에의 가속을 요구합니다' 도 개최. 대면과 온라인 합하여 179명의 조합원과 국회의원 10명, 국회의원 비서 4명이 참여했습니다.

■ 탈원전, 탈탄소와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요구 서명

112,957명 2024년 2월



[서명 요망사항]

1. 탈원전, 탈석탄 화력을 탈탄소 정책의 핵심으로 조속히 실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에너지기본계획을 조속히 개정하여 2035년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80% 이상을 요구합니다
3. 발전과 송배전의 소유권 분리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우선 접속·우선 전기 공급 정책을 요구합니다

■ 국가, 세대, 장애 등의 유무를 초월하여 유대한다

해외 시민과 교류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경제적인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나라나 민족과의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번째가 되는 「아시아 자매 회의·교류회」를 도쿄에서 개최. 생활클럽 조합원 대표와 사무국, 한국·대만 26명의 참가자와 온라인으로도 80명의 참가자가 있어 총 150명이 모인 대규모 행사가 되었습니다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달한다

생활클럽이 발신하는 정보가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연합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언어화를 추진하여 여러 언어로 관람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클럽의 인터넷 주문 'e클럽'에서는, 시각 장애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음성 위기 소프트웨어에 대응한 'e클럽 문자만 사이트'도 개시. 주문 수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개발자와 이용자 쌍방에서 시각 장애가 있는 분이 협력해 주셨습니다.



생활클럽연합회 공식 웹사이트



e클럽 문자만 사이트

9 **중요목표** 성평등과 다양한 노동 방식을 실현합니다.



여성의 인파워먼트를 강화해 누구나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거나 사회 참가를 추진합니다.

■ 여성의 사회적 발언이나 참여를 추진합니다

생활클럽에 참가하는 사람을 늘려 지역에 필요한 기능과 일터를 만든다

성평등과 여성의 인파워먼트가 세계에 큰 활력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이 국제적으로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이 중심인 생활클럽 조합원을 늘려 여성들의 목소리와 힘을 키워갑니다. 또한 '위커스 콜렉티브' 등, 지역에 필요한 기능이나 노동 형태,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 생활클럽 이웃을 늘려 목소리와 힘을 키워갑니다.

조합원수 2023년도말 **417,193명** 약83% 달성!
2030 목표 **50만 명**



4도현에서 전개하는 생활클럽의 소비재를 살 수 있는 가게 '데포'. 생활클럽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공동 경영을 실시하는 '위커스 콜렉티브'의 스타일을 취하고 있습니다.

■ 다양성을 존중하는 일하기 좋은 일터 실현

성별, 연령, 장애 유무, 국적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

성별이나 연령,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등에 관계없이 개인을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며 좋은 곳을 살릴 수 있는 일터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양성 및 일과 육아·개호의 양립 지원, ICT를 활용한 다양한 근로 형태를 실현해 갑니다.

■ 연합회에서 여직원 채용 및 관리직 등용을 더욱 추진합니다

여직원 비율 2030 목표 **50%**
여성 관리직 비율 2030 목표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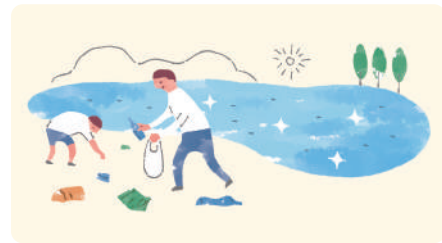
일본 기업의 임원·관리직을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

취업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에 45.1%. 하지만 관리직 직원 종사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에는 13.2%입니다. 최근 점차 상승하고 있지만,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눈에 띄게 낮은 수준입니다.(*출처·후생노동성 고용환경·고용국 고용기회 균등과 「고용의 분야에 있어서 여성활약 추진 등에 관한 현상황 및 과제」)



생활클럽에서는 성별이나 연령,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목표로 임합니다.

10 다른 단체나 행정과 연계하여 새로운 환경보전 활동에 임합니다.



다른 단체나 행정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해양 플라스틱 오염 대책이나 로컬 SDGs*의 대치를 추진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 바다나 삼림 등의 환경을 지키다

제휴산지와 함께 만드는 로컬 SDGs

생활클럽의 주요 제휴 산지인 쇼나이·유자, 토치기, 나가노, 기이 반도에서, 로컬 SDGs의 활동을 통해서 협동조합이나 행정, 다른 섹터간과의 제휴를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쇼나이에서는 사카타시, 쇼나이 미도리 농업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쇼나이 친생회와 2021년 12월에 '포괄 제휴에 관한 협정'을 체결. 협정에는 환경보전에 관한 항목도 있습니다. 사카타시 등 쇼나이 지역의 자치체와 함께 「먹거리(Food)」, 「에너지(Energy)」, 「복지(Care)」를 가능한 한 쇼나이 지역에서 자급해 연대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쇼나이 FEC 자금 네트워크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環境大臣賞 優秀賞 GOOD LIFE AWARD
 제10회 환경성 굿 라이프 어워드
환경부 장관상 우수상 수상!
 굿 라이프 어워드는 환경부가 제창하는 지역 순환 공생권의 이념을 구현화하는 활동을 표창해 그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도 제10회 환경부 장관상으로 생활클럽과 야마가타현 쇼나이 지역의 로컬 SDGs 프로젝트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산지로의 이주와 지역과의 교류를 이룰 수 있는 거점 'TOCHiTO' 시동

쇼나이 지역에서는 한층 더 로컬 SDGs를 추진하여 야마가타현 사카타시와 제휴, 2023년 6월에 「TOCHiTO(토치토)」를 오픈했습니다. 생활클럽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이주자의 거주 거점인 동시에 지역의 교류나 마을 만들기의 거점이 되는 복합 시설입니다. 부지내에는 이주자의 거주동, 교류동이나 휴식 광장 외, 현지 기업이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쉼어 오피스나 코 워킹 스페이스_Coworking Space도 병설. 이주한 사람들은 이미 현지에서 일하거나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임하며 지역에 친숙해졌습니다.



왼쪽은 교류동 'COTO', 오른쪽은 주거동 'TOCO'

다같이 힘을 모아 바다와 삼림 등의 환경을 보호

다른 단체와 협력하여 클린업 활동 추진

생활클럽은 2030년을 목표로 다른 단체나 행정과 연계하여 새로운 환경보전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등의 대규모의 과제를 타단체나 행정 등의 조직의 울타리를 넘어 많은 사람과 협력하는 것으로 해결을 추구합니다. 해양 플라스틱·미세 플라스틱*의 유출을 해변가에서 막기 위해 다른 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클린업 활동」도 그 중 하나입니다.

* 해양 플라스틱...어떤 요인으로 하천 등을 통해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플라스틱이 바다에 떠다니는 동안 부서져 5밀리 이하로 파편화된 것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고시엔하마 해변공원에서 실시된 클린업 작전

11 정보 개시와 자주 관리를 기본으로 하며 스스로 생각, 결정, 실행합니다.



조합원 주권에 입각한 조직운동을 기축으로, SDGs 달성에 주체적으로 임합니다. SDGs를 뛰어넘는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목표를 정하여 실행해 나갑니다.

독자적인 기준에 의한 관리와 점검을 추진한다

생활클럽의 자주기준

건강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생활클럽에서는 '소비재 10 원칙'에 근거하는 '자주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농업·어업·축산·가공식품·생활용품·용기포장, 에너지 그리고 모든 식품소비재에 공통되는 방사능 분야에 해당됩니다. 자주기준은 소비재를 만들 때 지켜야 할 규격과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소비재를 인도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클럽만의 소비재 Step Up 점검

조합원이 소비재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제조과정 등을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대면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온라인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솔직한 질문을 통해 생산자는 제조 측면의 재검토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등, 조합원과 생산자의 의견을 기초로 개량을 거듭함으로써 소비재는 향상되고 있습니다.



'말린 전갱이' 생산자를 찾아가 대화하며 점검을 실시한 생활클럽 가나가와의 조합원

2023년도 실적과 2030년 목표

■ 소비재 자주기준 등록수 (정과일 제외) **약93% 달성!**

2023년도 **2,409** 품목

2030 목표 **2,600** 품목

2023년도 실적과 2030년 목표

■ 소비재 Step Up 점검 **약83% 달성!**

누적 실시수 **1,310** 건
 1997년~2024년 3월말 현재

2030 목표 **1,570** 건

방사능 검사 활동

2011년의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방사능에 의한 식품의 오염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를 개시. 서서히 검사 장치의 수를 증강하여 자체 기준치를 보다 엄격한 수치로 갱신해 왔습니다. 또한 검사 실적을 바탕으로 위험이 적은 것으로 밝혀진 품목의 검사는 줄이고, 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검사 빈도는 늘리고 있습니다.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

■ 방사능 검사수

2023년도 실적 **4,063** 건

누적 실시수 **158,549** 건

2011년~2024년 5월말 현재



* 로컬 SDGs
 각 지역이 가지는 재생가능한 다양한 자원(자연, 물질, 인재, 자금 등)을 순환시켜 유효하게 이용하고, 지역과 지역이 서로 보완함으로써 서로의 활력을 최대로 살려 서스테이너블한 자립·분산형의 사회를 형성한다는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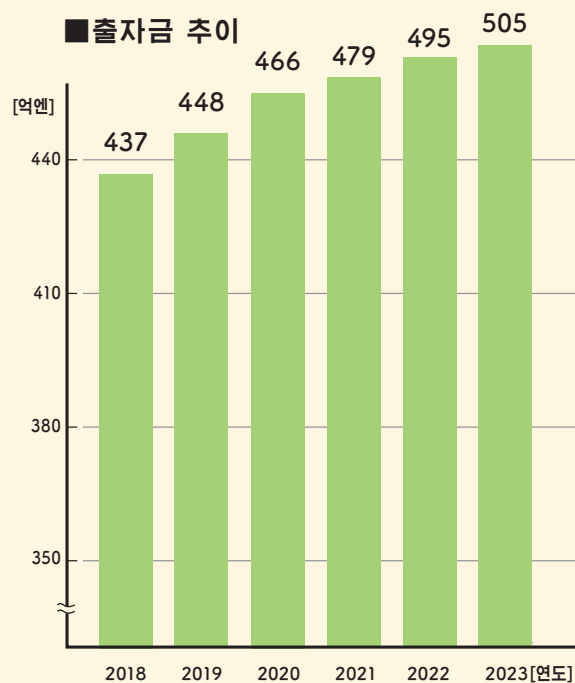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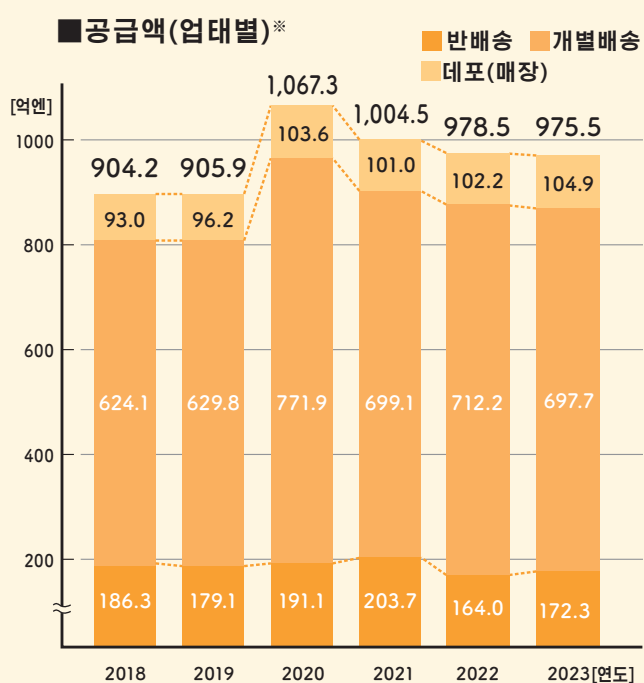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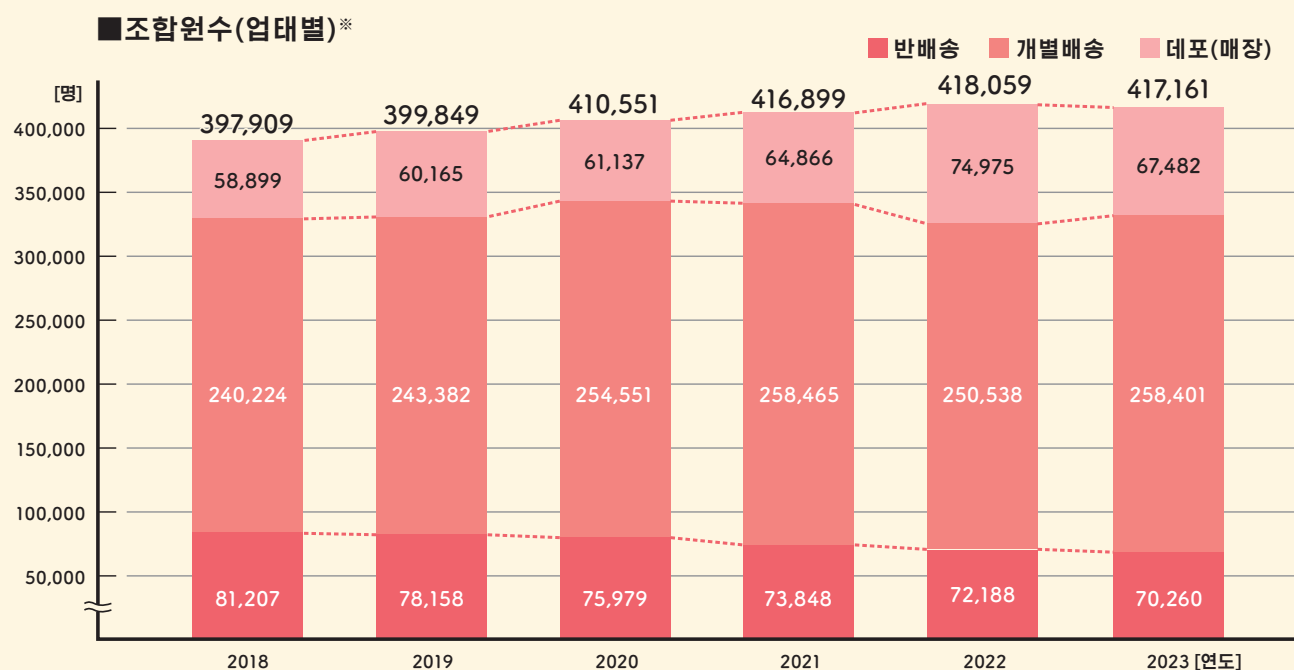
* 소비재 10원칙
 경제와 사회에 관한 5개 원칙과 환경에 관한 3개 원칙, 그리고 공생과 지지에 관한 2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재나 활동의 하나하나에 반영되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목표 11은 조합원 활동에 대해 정리한 SDGs에 머무르지 않는 생활클럽 독자적인 목표입니다.

데이터 숫자로 보는 동향과 추이

생활클럽 그룹의 전체 이미지가 보이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2023년도 공동구매 이용자 수, 사업액, 출자금 추이와 2022년도의 복지사업 사업액, 공제 제도의 가입자수 추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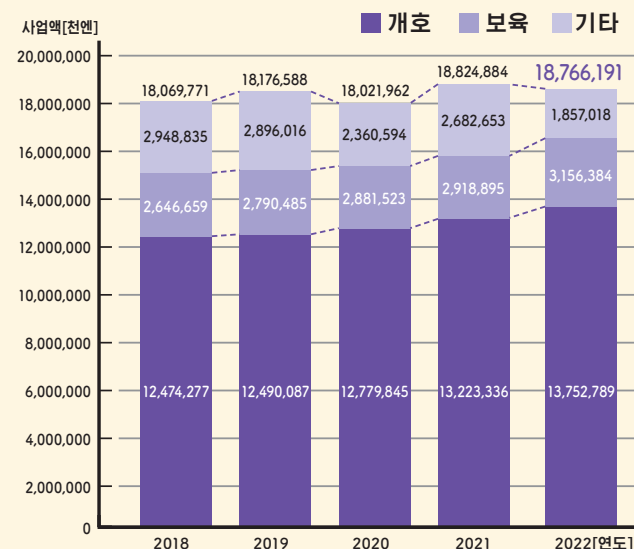
[DATA 1 숫자로 보는 공동구매 사업 동향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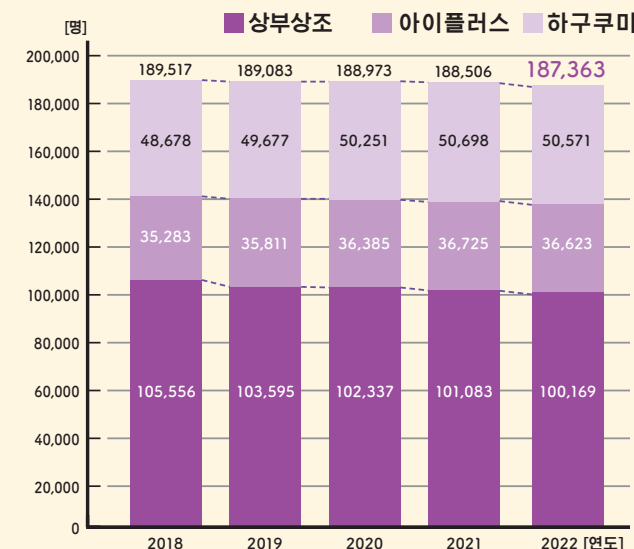
*각 연도의 합산치에는 반배송·개별배송·데포(매장) 이외의 조합원수, 공급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DATA 2 2021년도 생활클럽 그룹의 복지사업과 공제제도 확대]

■ 생활클럽 그룹 복지사업의 추이



■ 공제제도 가입자수



생활클럽 조합원이 주문한 소비재를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오후쿠와케(복 나눔)'



계속되는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매일 식사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생활클럽은 조합원과 생산자와 함께 푸드뱅크의 활동을 지역마다 지속. 한층 더 새로운 지원 '오후쿠와케'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푸드뱅크의 활동에서는 농가의 규격외품이나 식품제조기업의 미사용품 등의 식품손실이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클럽에서는 조합원의 주문에 따라 생산자가 계획을 세워 생산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예약 공동구매' 때문에 식품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쿠와케'에서는 조합원이 주문함으로써 푸드뱅크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대처활동으로 지역내에서의 지원의 테두리를 한층 더 넓혀갑니다.

'오후쿠와케'의 흐름



2023년도 생활클럽의 활동을 돌아본다

도쿄의 조합원이 개발 고부스비짱

제휴 산지의 공동 개발 쌀을 더 많은 사람에게 먹도록 하기 위해 생활 클럽 도쿄의 조합원이 2년의 세월을 걸쳐 다양한 의견을 살린 주먹밥 '고부스비짱'을 개발



통째로 도치기·생산자를 찾아가는 여행

2015년부터 매년 가을에 개최해 온 도치기현내의 제휴 생산자와 조합원과의 교류회를 3년만에 개최. 우유와 사료용 쌀 산지 견학



노베야마 영농슬라

태양열 공유 발전소의 견학회와 낙성식을 개최. 테이프 커팅 대신 재배 예정인 시금치 수확

나가노의 조합원이 개발 이거 좋아! 소시지

'이거 좋아! 슬라이스 소시지' '이거 좋아! 덩어리 소시지'는 생활 클럽 나가노의 조합원이 제휴 생산자와 함께 어떤 가공육을 먹고 싶은지 논의하고 시식을 거듭하여 개발



먹거리·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에 따른 합동학회와 의견교환회

'국내 농업을 지키고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라는 표어를 내걸고 전문가를 초청한 학술회나 의견교환회를 개최하여 국가에 제언을 제출



조합원 확대 활동 교류 집회

각 지역의 생활클럽끼리 조합원 확대 활동을 서로 배우는 조합원 참가의 장 '지역으로 확대되는 생활클럽'을 개최. 6개 지역 대표가 실천사례를 보고



조합원과 힘을 합쳐 목표 달성을 지향합니다

무라카미 쇼이치 생활클럽사업연합회 생활협동연합회 회장

2023년도는 일부 계란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이 있었으나 계란이나 닭고기 등 국산계종의 대응은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생산자의 협력과 조합원의 결집력에 의한 것입니다. 축산사료 자급률도 2022년도에 43%로 목표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사료용 쌀뿐만 아니라 자실(子実) 옥수수 생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클럽 전기의 재생가능 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 비율은 90% 이상이 되어 발전소도 69개소로 늘고 지금도 몇개소에서 건설중. 계약수는 2만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건설은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높은 친화력을 보여주는 것. 육아 광장이나 거처 만들기 등 대처하는 지역은 143 지역(자치체)으로 조합원 활동의 큰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엔화 약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의존하고 있던 일본의 식량과 에너지에 대해 이대로는 힘들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식량 분야에서는 고품화 등으로 이농이 진행되고 최근 20년간 약 100만명이나 되는 농업 종사자가 감소. 경작 포기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량과 에너지의 자급,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든 일본의 1차 산업을 지켜내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나 바다나 육지의 생태계를 지키는 활동의 지속, 재해에 대비한 조합원간의 평상시부터의 관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조합원이 연대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해를 넓혀겠습니다. ※2019년도 대비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란?

세계에는 불평등과 빈곤, 인구증가, 생태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대량생산과 소비, 기후위기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SDGs(에스·디·지스)는, 이러한 문제를 2030년까지 해결할 목적으로 세운 세계 공통의 목표입니다.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구별없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이념 아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SDGs의 현재를 생각하는 리포트

생활클럽은 SDGs의 이념에 앞서 동시에 SDGs에 머무르지 않는 독자적인 실천을 수반한 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생활클럽 2030 행동선언」에서는 한층 더 추진해야 할 활동 및 보다 선구적인 대처를 내걸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SDGs의 대응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자신답게 살기 위한 '웰빙'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웰빙(Well-being)'이라는 말. 최초로 명기된 것은 1948년 발효된 WHO(세계보건기구) 헌장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근로방식 개혁이나 건강 촉진 등의 키워드로서 폭넓은 분야에서 이용되는 경우도 많고 더욱이 정책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웰빙은 SDGs의 목표 3, 5, 8, 10 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만, 17개의 목표를 달성한 앞으로의 일로서 향후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SWGs(Sustainable Well-being Goals)」= 「모두 함께 지속가능한 웰빙 상태를 지향한다」라는 목표도 제창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클럽의 구조에 대해서

생활클럽은 생협입니다. 영리를 1차 목적으로 하는 일반의 기업과는 달리 조합원의 '출자' '이용' '운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함께 '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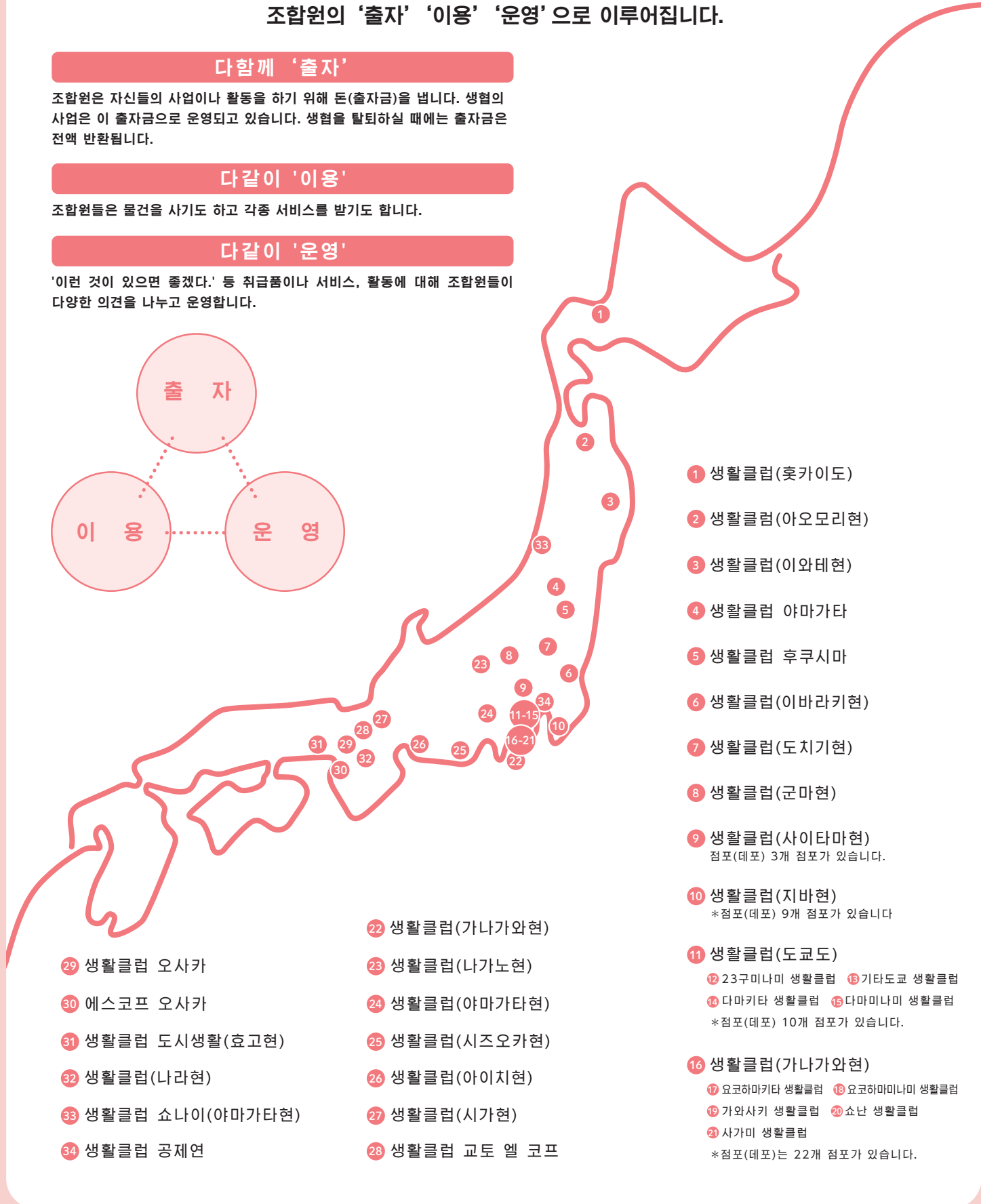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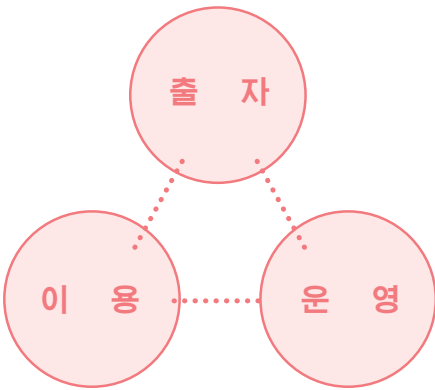
조합원은 자신들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 돈(출자금)을 냅니다. 생협의 사업은 이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협을 탈퇴하실 때에는 출자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다같이 '이용'

조합원들은 물건을 사기도 하고 각종 서비스를 받기도 합니다.

다같이 '운영'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등 취급품이나 서비스, 활동에 대해 조합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운영합니다.



- 1 생활클럽(훗카이도)
- 2 생활클럽(아오모리현)
- 3 생활클럽(이와테현)
- 4 생활클럽 야마가타
- 5 생활클럽 후쿠시마
- 6 생활클럽(이바라키현)
- 7 생활클럽(도치기현)
- 8 생활클럽(군마현)
- 9 생활클럽(사이타마현)
*점포(데포) 3개 점포가 있습니다.
- 10 생활클럽(지바현)
*점포(데포) 9개 점포가 있습니다
- 11 생활클럽(도쿄도)
12 23구미나미 생활클럽 13 기타도쿄 생활클럽
14 다마키타 생활클럽 15 다마미나미 생활클럽
*점포(데포) 10개 점포가 있습니다.
- 16 생활클럽(가나가와현)
17 요코하마키타 생활클럽 18 요코하마미나미 생활클럽
19 가와사키 생활클럽 20 쇼난 생활클럽
21 사가미 생활클럽
*점포(데포)는 22개 점포가 있습니다.

- 22 생활클럽(가나가와현)
- 23 생활클럽(나가노현)
- 24 생활클럽(야마가타현)
- 25 생활클럽(시즈오카현)
- 26 생활클럽(아이치현)
- 27 생활클럽(시가현)
- 28 생활클럽 교토 엘 코프
- 29 생활클럽 오사카
- 30 에스코프 오사카
- 31 생활클럽 도시생활(효고현)
- 32 생활클럽(나라현)
- 33 생활클럽 쇼나이(야마가타현)
- 34 생활클럽 공제연